대체 외아들을 어디다 버리셨을까?

(막 15:33~39)

33. 제육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구시까지 계속하더니
34. 제구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35.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36.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 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 주나 보자 하더라
37.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38.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39.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대체 외아들을 어디다 버리셨을까?'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본문에 유명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절규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절규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하여 우리의 죄를 속하신 대속의 사건이며 또 어떻게 하여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정결케 하고 모든 죄를 다 씻어줄 수 있는 보혈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먼저 이런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버리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나를 보내신 이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고도 하십니다.
보내셨어요. 보내셨는데 보내신 상태에서 버리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다 버리셨을까요? 질문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버리신다면 왜 버리시는 겁니까?
지금 십자가 사건이 버리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당연히 인

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인데, 꼭 우리에게 대답을 하라고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주님이 모르실 리가 없지요.

궁금한 것은 '버리셨다'는 단어를 쓰셨는데 도대체 어디에다 버리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버린다'는 말에는 어디다 버리는가 하는 장소가 필요한 용법이 있고,
예를 들어 우리가 '못 쓰는 물건을 버린다'고 말할 때는 집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린다는 얘기겠죠. 그러나 버린다는 말이 '조국을 버린다, 친구를 버린다'라고 얘기할 때는 어디에다 버린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국을 버린다', '친구를 버린다'는 관계를 끊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주석서는 이 '버린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관계를 끊었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끊어진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버리셨다.
그러나 관계가 끊어진 것은 아니지요. 죄인 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 된 인간의 상태가 구원사건에 고려된다는 말은 맞는 말이지만, 관계가 끊어진 것이 아닌 이유는 이 십자가 사건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동참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지만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알고 계셨고 또 마지막에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시고 의탁하신다고 하시고, 이것은 관계가 끊어진 것은 아니죠.
그리고 주님께서 죽으신 다음 매장되셨을 때 주님으로서는 아무런 행동을 하실 수가 없는 상태에서 부활을 시키십니다. 관계가 끊어진 게 아닌데 그 관계 안에서 버리신 겁니다.
사실 버리신다는 행위는 관계가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 상태가 되는 건데, 관계가 끊어지지 않은 채로 버리신다는 것이 무엇일까, 어디다 버리셨을까?

말씀드린 대로 버린다고 그럴 때 우리는 자동차를 어디에다 버립니까? 폐차장에 버리죠.
다 쓴 물을 어디에다 버립니까? 하수도에 버리죠.
버린다고 말할 때는 항상 이렇게 안 좋은 상태로 내 보내는 거죠, 물론. '금고에 버린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안방 한 가운데에 버린다'는 말은 안 해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다 버렸나 궁금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다 버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알기 위해서 버려지신 분의 증세를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아이를 들판에다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버려진 아이에게 나타나는 증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이가 막 당황하고 엄마를 찾아 울고 불고 난리 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아버지가 외아들 되신 분을 버리셨으니까…
어머니가 아이를 들판에다 아니면 먼 타향에다 버리고 돌아왔다면 그 아이가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난리가 나겠습니까?
그런 증세가 있나 한번 찾아보자는 것이에요.

그 증세를 찾아보기 위해서, 그것을 버려진 증세로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스테반과 비교를 해봅니다. 이것이 버려진 증세인가 아닌가를 알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전후한 주님의 모습들이 버려진 증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스테반과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디다 버려졌는지를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사도행전 6장부터 7장에 걸쳐 나오고 있습니다.
스테반이 순교하는 장면을 묘사한 이야기들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로부터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까지의 장면을 한번 비교해 보면,
먼저 같은 점은, 스테반도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했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당신을 못 박는 자들을 저들이 몰라서 하는 일이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점이 다릅니까?
스테반은 돌에 맞아 죽고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자, 돌에 맞아 죽는 것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어느 게 더 고통스러울까요?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때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훨씬 고통스러울 것이에요.
근데 돌에 맞아 죽는 것도 만만치 않는 것은 그냥 멀리서 내가 쉽게 던질 수 있는 자그마한 조약돌들을 던지는 게 아니잖아요,
돌로 쳐 죽이라고 할 때는 여러 사람이 데모할 때 돌 던지듯 하는 게 아니라 줄을 서서 앞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린 사람을 큰 돌을 들고 내리찍는 겁니다.
‘이 더러운 죄인아, 이 부정한 죄인아, 하나님을 모독한 신성모독죄의 죄인아 너는 죽어 마땅하다!’ 이러면서 내리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통이 더하다고 하더라도 만만치는 않아요.
그리고 주관적으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보다 내 손톱 밑에 들어간 바늘이 훨씬 더 아프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인 입장에서는 스테반의 마음이 느끼는 아픔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느끼는 아픔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인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그 장면을 묘사한 것을 보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 땅에 엎드리어…’ 그리고 기도하시게 됩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이건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무 너무 마음이 고민스럽고 고통스러워서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서 스테반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지금 머지않아 이들이 돌로 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분위기를 보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심히 두려워하고 떨고 계시고 마음의 고통에 짓눌려 계십니다.
이게 어쩐 일일까요?
아무리 십자가의 고통이 대단하지만 조금은 갸우뚱 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또 비교해 보면,
스테반이 성령 충만해서 설교를 하고 난 뒤에 하늘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보좌 옆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하늘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 6시부터 9시까지, 즉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열두 시 정오부터 3시까지, 하루 중에 제일 밝을 때 온 유대 땅이 다 깜깜해졌다고 합니다.
스테반이 죽을 때는 하늘이 열렸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오히려 깜깜해지는 겁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말씀하시는데 스테반은 하늘이 열리면서 자기의 영혼이 하늘로 받아들여짐을 느끼게 됩니다.

자, 이런 차이를 보면 이상한 것이에요.
베드로도 목이 잘려 죽을 거라고 하는 예정된 시간 바로 전날 밤 깊은 잠을 잡니다.
사도바울도 우리가 본 바대로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그 깜깜한 감옥 속에서 많이 맞고 착고에 채워진 상태에서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도바울이 평생에 당한 고난을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사십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고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음에서 지냈으며… …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정도로 사도바울의 일생의 모든 고난을 합치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한 고난보다 못하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십에서 하나 감한 매는 주님께서 맞으신 채찍입니다.
사십 대를 때리면 죽으니까, 그 정도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매를 다섯 번 맞고 태장을 세 번 맞고 굶고 못 자고 추위에 떨고 일주일 동안 깊음에 헤매고… 그걸 다 합치면 그 고난의 정도가 못지않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자, 이런 상태의 차이를 보면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럴까요?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는가 하면,
‘우리가 우겨 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린바 되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는 얘기가 가능해집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마음이 몸이 당하고 있는 현실로부터 떠나서 성령의 힘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겨 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되고 스테반처럼 돌에 맞게 돼도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될 수 있고 내일 아침에 목이 잘릴 것을 통보받아도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는 것은 마음이 몸을 떠나서 성령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 보좌에 계신 그 분의 품에 안겨 있기 때문에 그렇고, 승천하신 주님께 안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도 그러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안 그러시겠습니까? 몸은 이 땅에 보내졌지만 주님의 마음은 공중에 있으면서 하늘을 향해서 보좌에 앉아 계신 아버지하나님과 늘 성령의 교통 안에서 계셨습니다. 그래서 풍랑 속에서 잠도 주무실 수가 있었던 거죠.
풍랑 속에서 잠자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제가 밴쿠버에 있을 때 부교역자들을 데리고 수련회에 갔다가 잠깐 짬을 내서, 하도 낚시를 하자고 조르는 목사님이 계셔서, 고기를 잡으려면 인디언들에게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돈을 내고 모터보트를 하나 빌려서 아주 넓은 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물살이 센데 보트 조종을 잘 못하니까 중심을 못 잡고 빙글빙글 돌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보트가 물 수면에서 그리 높지를 않아요, 막 물이 넘어 들어옵니다. 네 명인가가 그 보트에 앉아 있는데, 그때 얼마나 두려웠었던지 말도 못해요.

그런데 밤중에 밤이 새도록 풍랑에 시달릴 때, 이 뱃사공으로 자란 사람들이 다 포기를 하는 그런 상태에서 두려움이란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 물살이 들어오고 배가 넘실거리는 일엽편주 안에서 어떻게 잠을 주무시겠습니까?
그러실 수 있었던 것은 마음이 하나님 품에 안겨있기 때문입니다.
몸이 풍랑에 우겨 쌈을 당했지만 마음이 평강을 누리기 때문에 주무실 수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버리신 것이 어떤 건지 알겠다 이겁니다.
어디다 버리신 겁니까?
몸에다가 버리신 거예요. 몸에다가…
공중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고 계시는 그 아들 예수님을 몸에다가 갖다 버리시고 몸에 묶어버리신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하나님 품에 안겨계실 때는 몸이 십자가에 매달려도 주님의 마음이 평강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 십자가사건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십자가사건이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결국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한번도 한 순간도 우리 인간처럼 공중에 있는 마음이 하나님을 등지고 이 땅을 보면서 땅에 있는 몸에 연합해 가지고 통치자가 되어 살아보신 적이 없으신 아무 잘못도 없는 그 아들을 몸에다가 버리시고 -몸에다가 묶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몸에 가시가 찔려 들어오고 채찍이 들어오고 할 때 그 모든 고통을 몸이 하나도 남김없이 받아들이는 고통을 마음 역시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그 고통을 받아들이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계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안절부절 하시며 두려워하시고 떠신 것입니다.
이러셔야 될 분이 아닌 것을…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제가 얘기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아빠와 어린 아들이 기차를 타고 함께 여행을 하는데 아이가 답답하다고 해서 기차의 칸과 칸이 연결된 부분에 나가서 바람을 쐬고 있습니다. 그러다 기차가 높은 교각을 지나는데 그만 기차가 마주 오는 기차와 부딪혔다고 가정합시다. 털컥 하며 충격이 가해지는 바람에 아들이 그만 허공에 떴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떨어지면서 아버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그 아버지의 바지자락을 잡고 있는 아들의 손을 떼어 내면서 '아빠 왜 그래요?' 하는데도 교각 밑의 끝이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를 잡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나를 이 땅에, 몸의 차원에 내버리시고 몸에다 나를 묶어버리시려고 합니까?' 하고 주님께서 외치시는 거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 외아들을 그렇게 더럽고 추악해서 영원한 징벌에 처해도 마땅하다고 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만큼 더러운 이 땅에 외아들을 버리시는 겁니다.
사탄보다 더 악한 나 때문에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왜 예수님을 버리셨을까요?
몸에다 버리셨어요, 왜 몸에다 주님의 마음을 버리셨을까요?
여러분, 몸과 마음의 관계가 이런 겁니다.
몸과 마음이 붙었다고 하는 역사는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리듯이 그렇게 버리는 것과 같은 역사라는 겁니다. 그렇게 안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몸에 붙는다는 것이…
주님께서 기절을 하시고 주님이 벌벌 떠시는 일입니다. 두려워하십니다, 마음이 몸에 버려지는 것을…
그렇게 주님이 두려워하시고 무서워하시고 걱정하시고 짓눌리는 고통을 앞서서 느끼시는 몸에 마음이 버려지는 일을 우리는 즐거워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좋다, 몸과 더불어 연합하여 이 땅에서 한번 행복하게 살아봐야지'
이렇게 몸으로 마음이 붙는 사실을 주님은 너무도 무서워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느끼실 때 우리의 죄라는 게 무엇인지 조금 감이 오십니까?
주님이 그렇게 무서워하시는 일을 우리는 아주 즐겁게 당연한 것처럼 몸에 붙어서 몸의 종노릇하며 살고 있는 거지요.

자, 이렇게 주님의 그 마음이 아버지의 손에 의해서 몸에 버림을 당하고 몸에 묶여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야 할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아버지는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으셨을까요?

인간의 죄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마음이 몸에 묶인 상태입니다. 마음이 몸에 연합되어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 있는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몸에 연합되어 몸을 사랑하고 몸이 좋아 몸에 붙어있는 이 마음에 마땅히 저주와 징벌이 주어져야 되는 거지요.
몸은 찢기고 형벌 속으로 들어가고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면 끝인데, 몸이 죽었다고 해서 마음이 괜찮은 거라고 한다면 여기에 무슨 형벌이 있고 징벌이 있겠습니까?
이 마음이 인격이 영원히 살아서 지옥 불에서 고통을 당해야 마땅한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똑같아지기 위해 자기 스스로 삶의 문제들을 판단하기 시작한 것이 그렇게 더럽고 추잡한 죄라는 거죠.

그 죄가 속해지려면 주님께서 몸으로 받게 되시는 모든 가시와 창과 채찍의 고통이 단 하나도 예외 없이 다 마음에 가서 박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원래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마음이 몸에 붙어있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늘 아버지를 사랑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높아지는 것, 임금 삼으려 한 것, 모두 다 팽개치시고 아버지만 좋아했던 분이거든요, 주님께서 아버지 앞에서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렇게 아버지만 좋아하고 아버지만 찾고 다니시던 주님을 바지자락을 잡고 있는데 손을 떼내고 떨어뜨린 이유가, 낭떠러지 밑으로 몸의 차원으로 떨어뜨리신 이유가 뭐냐?
마음이 몸에 가해지는 십자가의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인간들의 마음이 저지른 죄를 사할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대속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값이 지불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4장에 보면 이 십자가사건의 모형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사람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암염소나 어린양을 가져다가 제사장 앞에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면서 자기 죄를 다 고백합니다. 그러면 죄가 그 제물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제 나한테는 죄가 없습니다. 죄가 다 전가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내 속에서는 죄를 보시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
'다시는 너희 죄를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결단이고 약속이십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간 양이 불에 타죽는 것을 옆에서 보고 내가 죽는다는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대속의 양이 되시려고 하면 내 마음이 느껴야 될 모든 고통을 다 빨아들이시기 위해서,
주님은 몸에 붙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실 이유도 없으시고…
그걸 억지로 몸에다 쑤셔 박으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고' 보내신 것으로도 부족해서 육신에 죄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육신에 죄를 정하셨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육신에 죄를 정하셨다는 것은 육신에 마음이 연결되어서 이제 육신을 치시면 육신에 주어지는 고통이 마음에 고스란히 전달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실 육신 자체가 죄를 진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몸도 몸 자체가 죄를 진 게 아니잖아요.
시작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여자를 잡아다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모세율법에는 이러이러한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땅에 글을 쓰시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마 땅에 글을 쓰신 게 '죄 있는 자가 먼저 치라'는 말씀과 이어서 생각해 보면 거기 있는 사람들의 죄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예를 들어 거기에 김 서방이 와 있었다면 김 서방이 저지른 죄, 박 서방이 저지른 죄, 바리새인이 저지른 죄, 그들이 저지른 대표적인 죄들을 땅에 썼을 지도 모르겠어요. 다 가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기서 여자를 정죄하지 않겠으니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냥 자비하신 마음이 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때문에 그 마음으로 인해서 그냥 이 여자를 용서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죄는 그냥 너그러운 마음으로 덮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냥 가라고 하십니까?
이 여자가 수치심을 느끼며 길거리를 머리채를 잡혀서 끌려 다니면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그 형벌을 당신이 받을 것이니까 가라고 하신 겁니다.
그냥 자비로운 마음, 너그러운 마음으로 가라고 그러신 게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마치 이런 거예요.
영락교회 같은 곳은 그 주변이 거의 다 식당입니다. 예배가 끝나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밥을 먹고 나오려고 하면 저쪽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하시던 김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낼게 그냥 가세요!' 그러십니다.

이 여자 얘기도 똑같은 것이에요.
'네가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죄 값을 내가 치를 테니 가라' 이겁니다.
"내가 낼게 가라"
그때 이 죄 값은 여자가 머리채를 잡혀 끌려 다니면서 돌에 맞아 죽을 때의 그 고통과 수치심과 그 후회와 모든 심리적인 현상까지도 다 주님께서 받으셔야 죄 값이 치러진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자가 돌에 맞아 죽을 때의 수치심이나 굴욕이나 죄책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빼고 몸으로 맞아 죽는 것만 따로 지불할 수는 없는 거예요.
주님의 몸만, 마음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평강을 누리면서 몸만 당하실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요지가 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이 몸에 붙어서 이 몸이 오감관을 통하여 느끼는 이 세상 삶에 대하여 내가 주관자인 줄 착각하여 판단하고, 지금 주어지는 상황이 좋다, 나쁘다,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지독한 죄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죄 사함과 대속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대속을 위해 주님께서 아버지 바지자락을 붙잡고 괴로워하시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의 손가락을 다 펴서 그 몸이라고 하는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뜨려 버리신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외아들을…

그래서 대속이 일어나려면 주님의 마음이 고통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언제나 아버지께 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께 가 있는 주님의 마음을 내리 보내서 쑤셔 박아서 몸에다 집어넣으시고 몸에 묶어버리셨다는 겁니다.
무서워서 엉엉 울고 계시는 그 아들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러한 대속과 보혈-보혈이 뭐예요, 보혈이 '피 흘리심이 없으면 사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사하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보혈이 갖는 특징이 정결케 하는 거예요. 정결케 하지 않고는 하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 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13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구약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깨끗하게 한 그 다음에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보혈이 그런 힘이 있는 겁니까?
마음을 몸에 묶으셨기 때문에 주님의 몸이 찢어지는 살점 하나하나마다 주님이 흘리신 피 한 방울 한 방울마다 아무 이유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이 짓이겨지는 고통이 다 스며들어 있는 겁니다. 주님의 보혈 속에는 그냥 피가 아니라, 양의 피도 염소의 피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죄 때문에 육체에 가해진 그 모든 고통을 다 받아 흡수해서 한번 찔릴 때마다 마음에 고통이 느껴지기 때문에 찔린 데서 나오는 모든 피에, 떨어져 나오는 모든 살점에 다 하나님 아들의 마음의 고통이 들어가 있는데 이 고통이 바로 이유가 없는 고통이에요. 죄가 없이 당하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통을 우리 마음에 바르면 이유가 없이 받은 고통이기 때문에 죄라는 이유가 내 안에 있을 때 그 이유를 흡수해 버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명래 고약이 유명한 것은 그것을 붙이면 고름을 쏙 빨아들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주님의 보혈에는 이유가 없는 고통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상쇄시켜버

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 값을 상쇄시켜서 다 깨끗하게 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 '깨끗하게 해버린다'고 하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음이 몸에 붙어있는 상태가 예를 들어 여기 테이프가 있고 리모콘이 있습니다. 이 둘을 붙이면 이것이 그냥 붙는 것이지 더러워지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마음이 몸에 붙으면 둘 다 더러워집니다.
예를 하나 들어 볼까요?

실크로 된 하얀 블라우스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고급 일식집에 가서 식사를 하다가 대접하려고 하는 손님께 간장을 따라드리려고 하다가 그만 간장을 하얀 실크 블라우스에 쏟아버렸습니다. 흰 블라우스도 깨끗하고 와사비 간장도 입 속에 넣을 만큼 깨끗한 음식입니다.
깨끗함 플러스 깨끗함은 두 깨끗함이 되어야 할 것 같지만 블라우스의 깨끗함과 간장의 깨끗함이 합쳐지면 둘 다 더러워집니다. 참 이상한 일이에요.
마음도 좋은 것이고 몸도 좋은 것입니다. 깨끗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개가 합해지면 이상하게 볼펜 한 자루와 볼펜 한 자루가 합치는 것 같지 않고 하얀 블라우스와 와사비 간장이 합해지는 것 같이 더러움이 창출되어집니다.
그래서 몸도 더러워지고 마음도 더러워지는 것이에요. 멀쩡한 몸이 더러워지고 멀쩡한 마음이 더러워지는 것은 둘이 합쳐질 때 생깁니다.

이 더러움을 씻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이 합쳐졌으나 죄가 없는 분, 몸과 마음이 합쳐졌는데 더러워지지 않은 분, 합쳐졌다는 이유 때문에 고통만 받은 분, 그분의 피를 흘리심을 통해서 그 피 값으로 깨끗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지워지지를 않습니다.
그게 지워지지 않으면 거룩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십자가를 통해 주어지는 삼중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아예 주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깨끗해지지 않으면…

자,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가 주님이 버려짐을 통해서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 이미 주님의 몸은 이 땅에 와 있어요. 그런데 어디다 또 버리신다는 겁니까? 그 '나'가 누굽니까? 주님의 인격을 몸에 묶어버리심으로써 몸이 당하는 모든 저주와 고통과 고난을 고스란히 다 마음으로 빨아들이고 느끼게 하십니다. 마음이 고통을 당하시고 수치를 느끼게 하시고 굴욕을 느끼게 하신 뒤에 이유 없는 굴욕과 이유 없는 수치심이 남아돌 때 -그게 지불될 값이거든요- 이유 없는 수치심 이유 없는 고통이 그냥 공짜로 남아 있는 것이죠. 이유가 있는 고통이면 남아있는 것이 아닌데…

그래서 그 고통과 수치를 우리가 당할 고통과 수치 대신에 지불하시고, 또 그 보혈을 통하여 몸과 마음이 붙어있는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떨어져 나가고 더러워졌던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사건이 대속과 보혈의 능력을 생각할 때, 죄 사함과 정결케 하심의 역사를 생각

할 때, 몸이 마음에 붙는다는 이 죄의 현실을 주님에게 적용시켜 보면, 내 마음이 몸에 붙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가를 깊이깊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통한 깊은 통절히 느끼는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인격을 몸의 차원에 마치 구덩이에 버리듯이 버리신 아버지의 사랑이 주님의 살이 찢길 때 같이 찢겼음은 주님의 마음이 그 육체의 고통을 다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임을 압니다. 아버지의 마음까지 함께 찢기며 이루어진 십자가사건을 통하여 이제는 더 이상 죄 짓지 않는 자들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